한국경제 북방진출, 그장단기 포석

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북방경제 논의는 올림픽을 계기로 연일 폭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올림픽에 참가하고 올림픽 직전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가 정식발표됨으로써 국민들은 대공산권 교류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막혀있던 미지의 땅,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적성국가로 간주되어 오던 나라들과의 교류가 현실화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 소련, 동구 등으로 이어지는 북방경제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보호무역 파고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새로운돌파구 노릇을 해줄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는 일시적인 흥분보다는 냉철한 연구와 사전준비가 더 필요하다.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인 10월 4일 노태우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확대, 그중에서도 특히 시베리아개발 참여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사흘후인 10월 7일 나웅배 부총리는 우리 민간상사의 대북한교역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경제개방조치를 발표, 앞으로 북한과도 자유로이 경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었다. 이로써 우리의 대북방교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따라서 이제 북방경제권의 실태와 한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을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국을 미·일 못지않은 파트너로

사회주의 국가의 치명적 공통점은 자원의 인위적 배분으로 인한 소비재·생필품 부족. 이와 함께 계획경제의 타성인 ①관료주의 ②생산성 저하 ③저질상품 ④기술수준의 낙후 ⑤투자재원의 부족등이 손꼽힌다.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위한 일념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이미 50년대까지 대부분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성인 관료주의 (곤 경제적 효율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조직) 탓으로 책임과 효율성, 투자의 시의성이 상실되어 동구경제는 70년대 이후 대부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소비재의 절대부족과 기술낙후는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성은 나라의 예외도없이 투자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성장부진이란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때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은 뒤늦게나마 기업경영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서방선진국의 자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개혁의 역사가 비교적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70년대 외국차관으로 도입한 시설재및 설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70년대 말의석유파동에 뒤이은 세계경제불황으로 심각한 외채위기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80년대 들어 대부분의동유럽국가들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예외없이 차관도입보다 외국자본의합작투자유치를 선호하고있다. 외채부담 없이 합작기업을 통한 수출증대로 채무상환과 자본재도입에 필요한 외화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러한 전략과 제스처는 후발계혁국이랄수 있는 중국·소련도 예외는 아니다.

등소평의 실용론의로대표되는 중국개방정책은 78년12월의 역사적인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79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개방정책의진전에 따라 80년7월 심천(深圳)、(珠海)、산두(汕頭)、하문(厦門) 등 4개 경제특구가 설치됐고 14개 항구도시(1984년4월), 장강(長江) 삼각주 등 3개 경제개방구(1985년 1월) 산동 및 요동반도(1985년3월) 가 잇달아개방되었다. 경제특구를 비롯한 개방지역의 외국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10억 시장을 노리는 미·국·일본 기업들의 진출러시를 일으켰다.

중국은 현대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간주해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부머랭 효과를 우려한 나머지 기술이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등 적지않은 마찰이 일어남에따라 최근에는 상호보완성이 높은 한국과의 경제협력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시작됐다.

그 어느때보다 각광받기 시작한 중국은 한국의 성장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분히 한국을 의식한 산동성부자유지의 수순(手順)으로 나오고 있다. 초기의 제3국을 통한간접교역이 현지진출로, 다시 올림픽 직전 산동성 대표단의 방한(訪韓)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에 따라 뒤늦게 중국대륙에 뛰어든 한국은 현재 대우전자、조선무역、두산산업、한두수산 등 4개사가 현지에서 가동중이며 16개사가 현재 합작투자를 추진중이다.

정치체제 상행위관습 차이에 위험성 상존

□… 중국 소련 동구권으로 이어지는 북방경제권 이들…□
▨…은 과연 보호무역 파고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새…▨
□…로운 돌파구 노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교역량이지만 거꾸로 그렇…▨
□…기 때문에 교역확대 가능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이들 국가이다. 다만 변함없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정치적 위험성이 상존한…□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터인데… …▨
□… <신영수/중앙경제신문 국제부장> …□

극동 시베리아 개발

86년말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한 한두수산은 70%의 지분참여로 중국 근해에서 어로사업을 벌이고 있고, 대우전자는연산 10만대의 냉장고조립공장을 지난 6월 북주(福州)에 건설했다. 삼성、코오롱、선경、대우등 종합상사들도 현지 지사를 설치해 놓고 있다.

본격화

제계의 특성상 우리 관심이 소련·동구보다 중국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미처 개발되지 못한 노동력、지하자원、국토 등을 감안해 볼때 중국은 21세기의 경제대국을 꿈꿀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있다. 개방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도 85년에 12.3%、86년 7~8%、87년 9%로 NICS와 함께 세계선두그룹에 낄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후의 개발초기 단계와 사하기 때문에 산업·무역구조상의 상호보완관계는 일부 경공업의 문제는 있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현지진출뿐 아니라 한국과의 교역규모 (1987년 16억7천9백만달러) 도 꾸준히 확대될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합작진출이든상호교역이든 중국진출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도 적지않다. 중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사회간접자본의 미비、엄격한 외환관리、상행위관습의 차이、정치체제의차이、사회주의 공통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화폐 획득문제、중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제통화가 중국화폐인 민폐(人民幣)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외화조달에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투자유치독점적 기본적으로 외국자본과의 이용、수출을 늘리려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개방전략은 수출주도형이지 외국기업에 자국시장을 개방한다는 뜻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면에 있어서 10억여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매력은 극히 낮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이자 우리 공업제품의 시장쯤으로 간단히 속단한다면 앞으로 적지않은 맛보게 될 실망을 맛보게 될 지도 모른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표방하고 있는소련의 개혁정책은 소련의 경제대국을 꿈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개방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도 85년에 12.4